

수 윤리 정립과 물 관리 비전

윤 석 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부 수석연구원

1. 서론

환경문제의 위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 속도는 매우 느려 어려운 사태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크다. 환경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이해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 개개인에서부터 국가는 물론 세계 인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대한 국제연합회의(UNCED)에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리우선언, 아젠다 21, 산림에 관한 원칙선언, 기후변화협약 등은 지구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었으며, 세계 각국 정부는 이들 원칙을 근거로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해결은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일부 학자는 현재의 생태위기를 맞아, 인간은 급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즈노미야 후카시¹⁾는 '비약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공업사회 이후의 미래모형을 탐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미래모형에 관한 연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해결책은 우리들의 가치, 우선권,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를 맞이하여 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물에 대해 인간이 갖는 의식을 문헌을 통해 진단한 다음, 수 윤리를 제시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물 관리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 윤리의 정립

2.1 국민윤리와 수 윤리(Water Ethics)의 정의

철학(Philosophy)은 어원적으로는 희랍어의 Philosophia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은 Philo와 Sophia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 말을 번역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애지이다. 이러한 철학에 대한 정의는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학문 일반을 정의하는 의미로 한정되었다. 철학은 다른 분과학문이 학으로서 성립하기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보편학이기도 하였다.

국민윤리는 간결하게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는 오랜 역사를

거쳐 공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국민이 받아들인 생활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자 생활양식의 지도원리인 것이다. 국가 공동생활의 원활한 영위를 위해서 국민들이 지켜야할 규범 또는 민족과 국가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요구되는 가치관, 태도, 지식 등이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라는 의미 속에 포함된다.

간혹 철학과 국민윤리를 혼동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윤리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리학은 철학의 한 분야에 속한다. 철학에는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분석철학 등 여러 분야가 있다. 윤리학은 그 중 한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윤리학 내지 국민윤리가 철학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윤리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 관한 것이다. 윤리학이란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도덕적 행위의 규범이나 원리, 그리고 도덕적 판단의 성격과 기준에 관해서 연구하는 철학의 한 영역이며 도덕철학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윤리학은 문화적 특수성이나 사회적 풍습, 제도, 관습, 그리고 국가이념이나 체제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국민윤리와는 다르다.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윤리학은 보편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어야 하는 최고선」 내지 「당위적인 최고 가치」의 규명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데 반하여, 국민윤리는 특정한 시·공간적 특성을 가지는 사회에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도덕규범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결국 윤리학은 철학의 한 분야이며, 윤리학은 국민윤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전적으로 동일시될 수는 없다. 이렇듯이 철학과 국민윤리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국민윤리는 철학적 윤리학의 탐구성과들을 국민 공동생활이라는 문제에 적용한 응용규범 윤리학의 일종으로, 국민윤리의 목표와 내용은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깊은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립될 수 있다. 결국 국민윤리는 주요 관심사, 문제, 대상에 다른 「특수성」과 「개별성」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윤리가 한 사

회, 한 국가의 특수성에 의거해서 그 집단의 일원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철학은 한 집단 구성원이기 이전의 개아(個我)의 자각에서 출발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생각, 반성, 판단, 추리에 의거해서 도덕적 원리를 고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그 대상을 한계 짓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 대상자체가 보편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윤리가 한 사회, 한 국가의 특수성에 의거해서 그 집단의 일원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고, 환경윤리가 전통의 자연관을 탐구하고, 환경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윤리학적 원칙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수 윤리는 국민윤리와 환경윤리의 범주 내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수많은 윤리 중에 국민들이 물에 대해 지켜야 할 규범, 가치관, 태도, 지식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수 윤리 정립의 당위성⁽²⁾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경윤리학의 중요한 쟁점은 자연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이다. 자연이 도덕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환경윤리학자들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의무도 갖지 않는다”는 칸트의 논거를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통 윤리학에서는 도덕의 주체만이 도덕의 객체로, 의무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스스로를 도덕법칙에 종속시킬 수 있는 자만이, 곧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자만이 도덕적 권리의 주체이며 객체이다. 도덕을 ‘사람의 일’로 한정시킨 근거는 사람만이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으며, 도덕적 행위관계란 본질적으로 도덕적 행위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상호간의 대칭적인 관계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도덕은 ‘사람의 일’이기에 도덕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연물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즉 전통 윤리학은 도덕의 범위를 사람들 상호간의 행위의 영역에만 한정함으로써,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무한히 자유로운 행위의 공간을 창출해 주었으며,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 사람의 자연이용이나 파괴행위를 도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람의 자연이용을 무차별적으로 정당화시켜 주었다. 말하자면 항상 사람의 이익과 욕구충족만이 여타 자연 존재의 이익관심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자연의 도덕적 권리 문제는 현재의 논의에서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자연에 도덕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제까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인간중심의 도덕 공동체의 범위가 수정되거나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미칠 환경문제의 심각한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통상적 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가장 긴급하게 도덕의 보호가 필요한 인류의 구성원들을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환경윤리학자들은 사람과 동물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연 전체를 도덕 공동체의 영역 내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급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연의 도덕적 권리 인정의 문제는 자연의 도덕적 위상과 결부된 문제라고 여겨진다. 최근의 논의는 사람이 아닌 자연 존재들도 도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아닌 존재의 도덕적 위상은 세계관, 이론적인 전제 등 각자의 논점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지배적인 논점들은 대체로 인간중심주의, 동물평등주의, 생명중심주의, 자연중심주의 등으로 압축된다.

물은 생태계 내에서 최하위 단계이지만, 물이 없으면 모든 인간의 생명체는 사멸하고 만다. 이처럼 물에 의존해 자연생태계가 살아가고 있지만, 물을 생명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논점에 따라 인간, 동물, 생명, 자연 중심주의로 나누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자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물이 있다. 즉 생명체의 중심에 물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를 고려해볼 때, 물의 도덕적 위상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같은 도덕적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인간과 물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수 윤리를 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2.3 수 윤리의 정립

수 윤리를 국민윤리와 환경윤리의 범주 내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수많은 윤리 중에 국민들이 물에 대해 지켜야할 규범, 가치관, 태도, 지식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 윤리를 명문화하여 제시한다고, 단시간 내 우리의 정서와 생활 방식 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정서와 문화 및 일상 생활 속으로 녹아들어갈 때 국민윤리로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윤리의 성립 속성은 풍토와 풍습이 다른 한국과 외국의 물에 대한 철학적 내용은 같을 수 있으나, 수 윤리의 내용은 많은 부분 다를 수 있다.

오늘날 물의 부족, 오염 등과 같은 물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인간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물 자체의 윤리 규범보다는 물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생활 방식, 주변환경에 대한 국민윤리의식을 제고시킬 때, 현재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이점이 물만을 대상으로 수 윤리의 규범을 논하거나 제시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 윤리의 정립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물에 대한 국민들의 규범, 가치관, 태도, 지식 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물 위기의 시대에 물에 대한 새로운 국민의 행동규범을 제시하여 공감할 수 있는 「물에 대한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를 정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실천적 수 윤리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2.4 실천적 수 윤리의 제시

실천적 수 윤리의 제시를 위해 오늘날까지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세기의 주요 이념적 측면과 법령, 국가 정책적 측면, 종교적 측면, 2000년 헤이그 세계 물 포럼, 국가환경선언문, 2000년 기독교 환경선언, 환경비전 21 등 선언적 측면이 포함하고 있는 물에 대한 중요 이념을 분석하

었다.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이들 자료는 깊은 종교적, 철학적, 사회학적, 생태학적 고민을 통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문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은 본 원고에서 실천적 수윤리 정립을 위해 참고하였던 중요 이념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념은 수 윤리 제시에 참고하여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나, 전문가 그룹이 연구를 통해 수 윤리를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반드시 오류와 모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 윤리에

관련이 있을 다양한 이념을 검토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물에 대한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 차원에서 정리 제시는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표 1에 비교 제시된 중요 이념은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자연에 대해 인간은 봉사과 책임으로 배려할 것과 수량 확보를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수단을 도입한 자연의 절제된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이념의 배경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전제한 것이며, 인간의 생활 방식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표 1. 실천적 수윤리 정립을 위한 중요 이념의 비교 분석

검 토 항 목	중 요 이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의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구적 생태위기에 맞설 대안적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복리와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책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과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홍수에 안전한 하천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통적으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 기독교 - 이슬람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절제 • 창조물의 착취보다는 봉사와 책임 • 창조물의 불필요한 파괴는 금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언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헤이그 세계 물 포럼 - 2000년 기독교 환경선언 - 환경비전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안전한 물의 충분한 확보 •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한 식량의 안전성 제고 • 보존 위주의 개발을 통한 생태계 보호 •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물 자원의 공유를 위한 평화적인 협력 • 홍수, 가뭄, 오염 등에 대한 위기관리 • 물의 값어치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의 기준으로 매기되 수요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빈부계층간의 공평성 도모 • 공공성과 개인의 이익이 부합된 물 관리 • 물 절약과 수질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검소하게 하고, 나누며, 버리지 않는 생활을 강조하였으며, 환경파괴가 인간의 죄임을 고백 • 오염과 훼손의 사전 예방과 개발과 보전의 조화 추구 • 환경을 훼손하는 자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비용 부담 •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 활용 •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로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학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고,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 • 모든 생물종은 생존할 권리가 있으므로, 인간이 함부로 생태권을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됨 • 지구 자원의 낭비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와 직결된다는 등의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

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물에 관해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종교적 규범, 선언적 규범, 생태학적 이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 세대의 생활 규범으로 미래를 위한 절제, 청결, 배려, 공생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실천적 수 윤리로서 「물에 대한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중한 물, 아껴 쓰고 깨끗이 버리자

과거 우리는 혼한 것에 대한 비유를 「물 쓰듯이 한다」고 하였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물이 혼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비유된 언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구가 늘고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저하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귀하고 비싼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물 쓰듯이 한다」라는 저급한 윤리의식에서 탈피하여 「물을 소중하게 여겨, 아껴 쓰고 깨끗하게 자연으로 되돌려 준다」라는 윤리의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물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소중한 물, 아껴 쓰고 깨끗이 버리자」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중한 물」이라는 것은 물이 생명과 재화창조의 한 가운데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현세대에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는 절제를 의미한다.

「아껴 쓰고」는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아껴서 남는 물을 신규 수요처에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하류 주민과 생태계에 물의 양적인 배려를 해주는 생명존중사상을 의미한다.

「깨끗이 버리자」는 사용한 물을 잘 처리하여 하천에 되돌려 줌으로써 하류 주민과 생태계에 대한 물의 질적인 배려를 해주는 생명존중사상을 의미한다.

새로이 제시된 「소중한 물, 아껴 쓰고 깨끗이 버리자」는 「물에 대한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로서 절제,

청결, 배려, 공생 등의 생명존중사상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에 단순 명쾌하고 모든 국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의 정서가 녹아 있어야 한다. 윤리란 정의에서 살펴보면 뜻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자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물, 아껴 쓰고 깨끗이 버리자」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어떤 형태로든 주장되어 왔던 말이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은 윤리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오랫동안 사고하여 형성된 윤리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행동하고 표출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알면서도, 행동으로 쉽게 표현되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보면 윤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 윤리의 실천적인 항목으로 국가차원의 물 관리 원칙, 민간차원(기업)의 물 관리 원칙, 개인차원의 물 관리 원칙의 제시가 필요하다.

3. 물 관리 비전과 원칙의 정립

3.1 물 관리의 기본 전제

- 물 관리의 비전과 원칙은 「소중한 물, 아껴 쓰고 깨끗이 버리자」라는 수 윤리의 기반 위에 제시되어야 한다.
 - 수 윤리는 「물 쓰듯이 한다」라는 우리의 물 낭비 의식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 물 관리의 비전과 관리 원칙은 수 윤리에 기반을 두고 「균형과 견제」, 「권한과 책임」, 「조정과 통제」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물 관리는 물질적인 풍요, 정신적인 평온함, 환경적인 쾌적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전제 하에 추구되어야 한다.

- 물 관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 정신적으로 평온함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과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쾌적성을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대의 복지적인 혜택을 인식하여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의 수자원의 특성과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절적으로 편차가 큰 강수 문제와 지형적인 특성으로 야기되는 가뭄과 홍수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99년 기준 30%에 불과한 전국 하천의 목표 수질과 수돗물의 불신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국 평균 40%에 달하는 수자원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대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대규모 지하수의 개발이 어렵고, 토지이용의 다양화와 폐공 등으로 인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물 관리에 외국의 경험과 계도를 도입하여 한국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물 관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 속에 유역의 통합관리 개념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외국의 법, 선언문,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대 상황에 적합한 물 관리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 물과 인간과 동식물을 연계하기 위해 물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 시·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물 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발과 보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 2000 헤이그 세계 물 포럼에서 제시된 선언을 존중하여 물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안전한 물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 식량의 안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보존 위주의 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물 자원의 공유를 위해 서로 평화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안전한 물 공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홍수, 가뭄, 오염 등에 대한 위기관리를 하여야 한다.
 - 물의 값어치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의 기준으로 매기되 수요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빈부계층간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 공공성과 개인의 이익이 부합되도록 물을 현명하게 다스려야 한다.

3.2 물 관리 비전 및 기본 지표

(1) 물 관리의 비전

「건전한 물 활용과 안전하고 친근한 물 환경 조성」을 기본 목표로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된 물 이용, 풍수해로부터 국토 보존과 국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홍수에 강한 사회기반 형성, 그리고 유지용수의 확보를 통한 하천 생태계의 보호 및 수질오염 저감을 통한 자연과 조화된 하천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물 관리의 방향

물 관리 기본방향은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21세기 생태·위락·환경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지역간 물 문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현안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간의 하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3) 물 관리 성패의 기본 지표

21세기의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의 철학적 기초는 물에 관한 한 다음 세대에게 고통을 넘겨주지 않는데

있다. 이를 위한 지표는 지역적, 계절적인 물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고, 홍수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집 앞 냇물에서 수영을 즐기고 나뭇을 씻어 먹을 수 있고, 제한급수 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과 민물고기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능 여부를 떠나서 물 문제의 성패는 이와 같은 지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로 평가할 수 있다.

3.3 물 관리의 기본 원칙³⁾

물 관리의 기본 원칙은 계획 단계부터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21세기 물 관리의 성패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추진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념으로 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물 관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처, 사회단체, 전문가들과 교감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물 관리의 안전성, 공정배분, 유역관리, 비용부담, 효율의 원칙 등을 확보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1) 전국적인 통합적 관리

- 수자원 관리가 전국적인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자원위원회(Water Resources Council, WRC)와 같은 수자원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장기정책을 수립한다.

(2) 유역별/지역별 관리

- 행정단위와 물 관리의 딜레마는 자연적인 경계와 행정적인 경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을 조직간, 주체간 조정과 통제, 균형과 견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문제

를 최소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유역통합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킨다.

- 이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역별/지역적 관리는 2개 이상의 행정단위를 연결하는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조정된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홍수, 가뭄 및 수질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도의 개선 및 정부조직의 운영

-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 관련 제도는 거의 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모된 현재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가칭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4) 수자원 계획 방법의 개선

- 수자원 개발은 개발의 당위성이 아무리 있다해도 환경보호 등 관련 이해집단과 갈등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적용해왔던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여 통합자원계획(Integrated Resource Planning)과 같은 기법을 물 관리 정책 수립에 도입한다.

(5) 대중교육 및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 일반대중과 정책결정집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과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에 나타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6) 수익자 및 오염자 부담 원칙

- 용수가 부족하고 사용자간에 갈등이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물 관리에 이득을 보는 수혜자와 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자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확립하여 물 낭비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7) 공공정책과 기술 결합

- 물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술의 개발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개발된 기술마저도 법률, 설계지침, 시방서 및 자료관리체계 등과 같은 사회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물 관리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진보가 물 관리 목표와 결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맺는 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의 수 윤리와 물 관리 비전과 원칙을 제시하여 보았다. 오늘날 물 관리는 수 윤리를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류 사회가 이익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로 지배되고 있는 한, 종교의 가르침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고 확대재생산의 메카니즘이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불능의 과정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되는 한, 환경문제로 인한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

우즈노미야 후카시(1)는 이와 같은 딜레마에서 헤어나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개발할 것인가 보전할 것인가라는 문제 중 어느 한 쪽을 취사선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개발지향형을 고수할 것인가,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하여 개발을 거부하고 궤도전환을 감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화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즉 개발론과 보존론과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개발과 환경간의 상호 대립구조에 대수술을 가하여 현대문명의 위기를 성찰하고 기존 시스템의 궤도 수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대안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불교는 “꽃의 향기도 아름다움도 결코 해치지 않으면서 꽃가루를 모으는 꿀벌과 같은 방법으로 자연을 이용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꿀벌이 꽃에서 꿀을 얻듯이, 인간도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계를 훼손함이 없이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인간 각자가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방식을 택할 때 비로소 전체로서의 인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물 관리를 포함한 오늘날 환경정책은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계몽과 규제 제도를 선도해 나가고, 국민들은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통해 소유와 욕구를 최소화하며 검약을 미덕으로 삼는 윤리적 생활을 하고,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이 자연에 대한 배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문제 해결의 작은 시발점이 된다.

이와 같은 정신이 함축된 것이 본고에서 제시한 수 윤리의 기본 정신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참고문헌

1. 宇都宮 深志(1993), 개발과 환경의 정치학, 강성철, 홍응우 공역, 대왕사, pp. 123~157
2. 김양현(2000), 현대 환경윤리학의 논의 방향과 쟁점들, 신학과 철학 보호, <http://www.ksdn.or.kr/resource/sd/sd09/sd090004.htm>.
3.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9), 수자원정책·관리개선방안 연구, pp. II-1~II-53